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 예배 후에 교육관에서 1월 정기 임원회가 열립니다.

오늘 오후집회는 1남, 1·2여선교회 주관 예배입니다.

이번 주 수요집회는 2월 기도의 밤으로 모입니다.

속회가 개학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3일) 오전 11시 교회에서 연합속회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인도 : 인도자, 식사준비 : 속장)

청년부 겨울수련회가 2월 4일(토)부터 1박 2일로 지평에서 열립니다.

양상철 씨와 박재란 씨가 2월 4일(토)에 결혼합니다. 예식은 당일 오후 2시 청파교회에서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기도 시간과 말씀 묵상 시간을 정해놓고 성실하게 지켜가길 바랍니다.

식 당 봉 사 : 이순정 오복순 오자영 박안수 이윤석 문복순 이근식
 2/5 식 당 봉 사 : 김금순 박영신 이은정 서수진 박숙영 박영희 김종락
 오늘설거지봉사 : 이준하 이윤석 박인수 박찬덕
 다음 주 설거지 : 박시내 최은미 이성범 류준모 심호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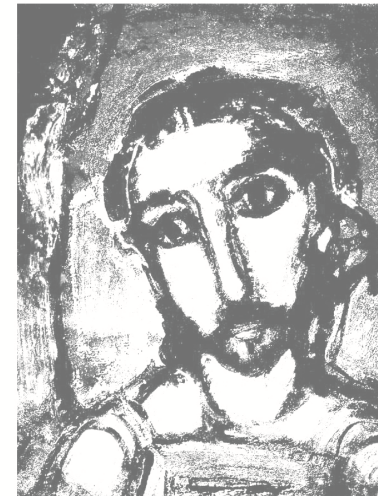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3:3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생명의 바람, 평화의 물결 되어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일 낮 예배 순서

자비하신 하나님, 명절 연휴를 잘 지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일상에 돌아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족과 친지들에게 품었던 고마운 마음과 미안한 마음을 잘 갈무리해, 일상에서 만나는 이웃들을 더욱 정성스럽게 대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가족 같이 연결되어 있음을, '네가 있어 내가 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주님, 엄동설한에 화재로 집을 잃고 어려움에 처한 우리의 이웃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한 순간에, 화마에 모든 것을 잃고 망연자실해 있는 가난한 이들의 시린 마음을 따뜻하게 품어 주십시오. 주의 천사들이 전하는 온기로, 검게 타버린 집터와 이재민의 마음에 파란 희망의 새싹이 돋아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 헌금 영수기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곽상준 최경미 곽새롬 권미숙 김문주 김범진 김미현 김윤수 박상호
 김인석 이선화 김지호 전해리 박규석 박경선 박진혁 손성현 안경아
 송남필 이경남 이범석 류정욱 이은자 이종배 이준림 이진영 한양미
 임주빈 최현옥 장원호 박성희 정연희 정한구 왕영순 조병익 조정연
 한인철 조윤숙 허명선 홍선희

감사헌금:

김도훈 표민주 김지호 전해리 나그네 송임희 원영걸 유영남 이범석
 류정욱 이봉배 이성범 이민범 장미란 차혜심 최종훈 김금화 무명7

녹색꿈헌금:

국지연 이범석 류정욱

생일감사헌금:

박시내 허호범

	장혜숙 노순옥 최희영 장영숙 정경례 박홍재 박호선 이순정 이형숙 안홍숙 정영선 박혜경 김재홍 이범석 손성현	백혜숙 박성희 최경미 신영신 진정숙 곽권희 허정운 김금순 권미숙 오현정 서정순 조항미 오자영 이근식 곽상준	심	심
--	---	---	---	---

행복

이시영

나이든 여성들의 노동수도공동체인 남원 동광원의 김금남 원장(79세)의 얼굴은 그렇게 깨끗하고 맑아 보일 수가 없었다. 그녀가 말했다.

“1949년에 동광원 식구들은 광주 방림동 와이엠씨에이 건물에 살다가 쫓겨났어요. 30여명이 한겨울인데도 오갈 데가 없어서 방림다리 밑에 천막 세 개를 치고 살았습니다. 10여명이 한 막 속에 들어가다 보니 밤에 발도 뻘을 수 없었어요. 그 추위 속에서 옆 사람의 체온에 의지해 잠이 들곤 했습니다. 탁발하고 시장에서 주워온 푸성귀들을 다리 밑에서 물에 씻어 팔팔 끓여 먹으면 그렇게 맛있을 수 없었어요. 육체가 낮아질수록 영혼의 기쁨이 말할 수 없이 커지는 게 참으로 신비로운 일이지요.”

그리고 그녀는 그 노구가 땅에 닿도록 절을 했다.

정말 빛을 본 사람만이 그 빛에 먼지 같은 자신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는가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사랑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응답하며 사십시오. 다가가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십시오. 그들이 일어설 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도 회복될 것입니다.

아멘. 제 앞가림에만 급급할 뿐 바로 곁에서 힘들어하는 이웃을 살피지 못하며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용기를 내어 그들을 향해 손을 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의 신음에 응답하며 살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날을 그리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김보라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혜경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1남, 1·2여선교회 주관예배	2월 기도의 밤 인도 : 김기석 목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이범석 목사	공동기도	곽권희 권사
	김기석 목사	김근종 권사	권혁순 권사

1월	영접위원	김인걸 김중수 임주빈 홍복선 최현옥 오자영
	헌금위원	방문성 박홍재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나무의 휴식

기원전 213년 진나라 시황제는 책들을 반체제적인 위험물로 간주했다. 책을 읽는 것은 국가의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 똑똑한 자는 국가의 적 제 1호가 되는 셈이었다. 확실한 전제군주가 되기 위해 누구도 똑똑해선 안 될 일이었다. 생각하는 자는 누구나 황제에게 역심을 품게 마련이라는 것이 법가(法家)들의 주장이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람들을 일에만 몰두하게 만들어야 한다. 누구에게도 쉴 틈을 주어서는 안 된다. 휴식은 반성을 낳고, 반성은 곧 반란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만약 시황제가 지금 살았더라면 아예 그런 조취를 취할 필요조차 없었을 것이다. 책을 읽는 것, 휴식을 하며 그 안에서 의미를 찾는 것은 한가로운 사람이나 부릴 수 있는 사치로 통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우리는 매사 지혜로운 척 살면서도 실상은 그 반대의 길로 치닫고 있는 게 아닐는지.

주변 사람들은 나에게 ‘거꾸로 사는 남자’란다. 만날 나무나 풀 얘기만 하면서 여유를 부리는 모습이 부럽다나. 실은 그 ‘여유’가 먹고살기에 쪼들리지 않을 정도로만 돈을 벌겠다고 마음먹어서 얻어진 것인데 말이다. 어쨌든 그러면서 얘기한다. 나도 그럴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시간이 너무 없다고. 시간이 왜 없느냐고 물으면 한 대 얻어맞은 듯한 표정으로 나에게 되묻는다.

“그걸 말이라고 하나?”

왜 그럴까. 정말 나는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물은 것인데, 내가 계속 포기하지 않고 물으면 그제서야 마뜩찮게 말한다. 그냥 사는 게 바쁘다고. 매일 쳇바퀴 도는 일상인데도 왜 그렇게 할 일이 많은지 모르겠다고.

나는 그런 사람을 보고 있으면 ‘포화 상태’라는 말이 떠오른다. 손에 잔뜩 쥔 채 하나도 놓지 않으려 하고, 남보다 먼저 어딘가에 도달하기 위해 앞만 보고 뛰어가는 사람들. 그들을 보고 있노라면 내가 다 숨이 가쁘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왠지 고무 타는 냄새가 느껴진다. 과하게 기계를 돌릴 때 풍기는 고약스런 냄새 말이다.

나무를 표현함에 있어 흔히 ‘정중동(靜中動)’이라는 말을 쓴다. 겉으로

움직임 하나 없이 고요하지만 안으로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행한다는 말이다. 맞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무는 세상 그 누구보다 바쁘게 쉼 없이 움직인다.

사시사철 햇볕을 받아 앞에서 영양분을 만들어 낸 다음, 그것을 부지런히 뿌리와 몸통 여기저기에 운반하고, 뿌리로부터 다시 물을 받아 이를 가지 끝까지 옮긴다. 가까이 가서 보면 나무의 거친 숨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그렇게 일 년 내내 열심히 살면서 나무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으로 한 해를 마무리한다. 사실 나무가 사는 목적은 열매를 만들어 내기 위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무의 사는 모습을 보면 그 모든 것이 오로지 꽃을 피워 열매를 맺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나무란 놈에게는 한 가지 엉뚱한 구석이 있다. 어느 해가 되면 갑자기 열매 맺기를 포기해 버리는 것이다. ... 나무가 열매 맺기를 거부하는 것. 이를 가리켜 ‘해거리’라고 한다. 말 그대로 열매를 맺지 않고 해를 거른다는 뜻이다. 어느 해에 열매를 너무 많이 맺고 나면, 다음 해 가을에는 어김없이 빈 가지만 덩그러니 남아 있다. 왜 그럴까. 이유는 단순하다. 살아남기 위해서다.

열매 하나를 맺는 데는 최소한 수십 개의 잎사귀에 해당하는 영양분이 필요하다. 광합성 등 나무의 모든 생명 활동이 앞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때, 잎을 희생한 열매의 가치는 다른 것과 비교할 게 못 된다. 나무에게 열매는 최고의 재산인 것이다.

그러나 여러 해에 걸쳐 열매 맺는 데만 온 힘을 다 쏟으면 어떻게 될까. 해를 거듭할수록 나무 안의 자생력은 사라지고 점차 기력을 다하게 된다.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나무의 상태가 계속 나빠져 어느 순간 한계치에 달했을 때 나무가 또다시 열매를 맺으면 그 나무는 그 해를 넘기지 못하게 된다. ...

때가 되면 모든 걸 접고 해거리를 통해 과감하게 휴식을 취할 줄 아는 나무. 일부 식물학자들이 나무가 세상에서 가장 진화한 존재라고 주장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 사람도 하기 어려운 일을 나무들은 하나같이 당연하게 행하고 있으니 말이다. ...

쉴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끼면 만들어라. 일을 배우고 익히듯, 쉬는 것도 배우고 익힐 노릇이다. 나무는 오늘도 나에게 조용히 가르쳐 준다. 휴식은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얻어야 할 삶의 중요한 자양분임을.